안병무와 사상충돌이 있을수 밖에 없었던것은 두사람이 자란 환경과 두사람이 겪은시대 환경을보는 시각차가 컸기 때문이다.

안병무는 1922년 평안남도에서 한의사인 아버지 안봉석과 남편의 이중생활로 마음고생과 자녀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어머니 최윤숙(신천댁)의 맏아들로 태어났다. 안봉석이 다른 여자와 간도로 떠난다는 소식을 들은 최윤숙이 한살배기 안병무를 업고 역으로 달려나가 국경을 넘게 되고 결국 용정에 있는 중학교에서 공부하게 되고 그 학교에서 안병무는 김재준의 사사로 훗날 뭇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게 할 윤동주, 강원룡, 문익환, 문동환 함께 민족주의적 교양과 신학의 소양을 닦는다.

안병무는 일본의 대정대학교 문학부에 진학하지만 태평양 전쟁 발발기에 학병이라는 이름으로 강제 징집이 시작되자 중국 용정으로 도피한다 해방이 된 이듬해 서울에 와서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사회학과에 들어간 이즈음 이때까지 안병무와 박영숙의 동선은 비슷하다. 두사람 다 평안도 출생이고 어린시절 만주에서 지냈으며 해방후 남한으로 와 매우 비슷한 과정을 거쳐서 남한으로 왔지만 아직 이들이 만나기까지 20여년의 시간이 필요했다

안병무는 서울대의 기독학생운동에 함께하면서 평생을 같이하는 친구들을 만난다. 그들이 학교를 졸업한후 교회개혁을 꿈꾸며 교회를 세우고 신앙공동체를 이끌게 된다 그러나 그 무렵 발발한 6.25 전쟁은 기성 교회에 대한 신뢰를 흔들어 놓는 계기가 된다.

이계기를 통해 안병무는 기존 교회를 떠나게 되지만 참된 교회와 예수의 길을 포기하지는 않았다. 1951년에 옛 동지들과 다시 만나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요한을 생각하며 울면서 '야성(野聲)'이라는 잡지를 낸다 박영숙이 북한에서 읽었다는 그 야성이다. 동지들과 이후 서울로 환도한후 반수도원적인 생활을 하는 공동체 생활을 시도했으나 결국 이것 역시 가족이기주의로 실패한다 안병무는 이때 결혼에 대한 회의를 갖는다. 1956년 그는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에 적을두고 본격적인 신학공부를 하고 1965년 돌아온다

1967년 박영숙과 결혼할무렵 박정희 독재정권의 민주주의 말살의 폭압정치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한다. 이과정에서 실천하는 지성으로서의 안병무가 1974년 '민주회복 국민선언'에 서명한것을 비롯 민주화 운동에 적극 가담하고 학교에서 강제 해직된다 1976년 3월 1일에 명동성당에서의 '3.1 민주구국선언' 사건으로 안병무도 다른 서명자들과 함께 구속된다. 그때 박영숙은 다른 구속자 가족들과 함께 민주화운동에 적극 참여하는 계기가 된다. 1979년 8월 잠시 복직되지만 이듬해 다시 해직된다 안병무는 해직이 되었지만 민주화 운동과정의 중심에 서서 이론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